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1. 11. 2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I. 개요

1. 개최일시 : 2021. 11. 2(화) 13:30~17:30
2.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 - 오쿠라호텔 도쿄 연결 화상회의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06명
 - 한국 측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98명
 -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8명
4. 회의주제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II.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 간 갈등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면에서도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멈춤없는 교류와 경제협력의 등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635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5회 연기 : '91년 걸프전쟁, '11년 동일본대지진, '17년 한국 대선, '19년 한일 갈등 '20년 코로나 팬데믹, '21년 코로나 팬데믹
-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기로 하는 '새로운 미래 창조 선언' 공동성명을 채택
 -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 창조·경제교류 확대·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교류·우호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선언
 - 제3국에서의 협업,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국제공조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 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
 - 하루빨리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
-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
 -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
-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

- 다 음 -

1.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
-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2. 교류·우호 인프라

- 연계·협조의 기반은 상호 이해와 신뢰이며, 양국 연계의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신
- 미래를 향한 한일 우호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의 차세대 교류와 지역 간 등 풀뿌리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3. 정부에 대한 기대

-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기대

- 다음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개최

□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NHK,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새로운 미래 창조를 향한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언론사 지면·사진기사 포함 86여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3.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일을 웹으로 연결하여 화상회의로 회의를 개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미래 창조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

○ 코로나 팬데믹, 교류 중단이 지속되는 등 한일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회의장에 200여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한국 98명, 일본 108명 (韓회의장 98명(韓76/日22), 日회의장 108명(日81/韓27))

□ 향후 후속조치 계획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작, 발송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3)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

(첨부분서)

1.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2.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3.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언론기사 모음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11월2일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일본국 도쿄도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8명이 참가했다.

세계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진척되는 등 호전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루빨리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더욱이,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진전되고 있다. 양국 기업에 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양국에 있어서,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 공통의 과제이지만, 그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며, 이의 달성을 향한 한일의 제휴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

2. 교류·우호 인프라

연계·협조의 기반은 상호 이해와 신뢰이다. 한일 경제인은, 양국 연계의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또한 미래를 향한 한일 우호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의 차세대 교류와 지역 간 등 풀뿌리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3. 정부에 대한 기대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다음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1년 11월 2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참고 1〉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개최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13:30 ~ 17:30
- 개최장소 :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단원구성 : 206명 (한국 98명, 일본 108명)
 - * 한국 98명, 일본 108명 (韓회의장 98명(韓76/日22), 日회의장 108명(日81/韓27))
- 전체테마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개회식 13:3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인사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주)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내빈인사 - 한국 측 :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 측 :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한국 측 :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기조연설 14:2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연설 -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영상)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
15:00~15:20	▶ Coffee Break
전체회의 15:2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좌장 : 염재호(廉載鎬) 고려대학교 교수(前총장)·SK(주) 이사회회장 - 한국측① : 이동근(李東根) SamJong KPMG 상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 일본측① :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상황 ~현장보고~)」 - 한국측② : 권낙현(權洛顯) H2KOREA대외협력센터장, 현대자동차R&D품질강화추진위원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 일본측② :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외국어대학(神田外語大学) 학장 「청년들이 열어가는 미래」 ▶ 질의응답
17:00~17:10	▶ 휴식
폐회식 17:1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성명 채택 ▶ 폐회인사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주)삼양홀딩스 회장
한일산업기술페어 09:00~18:00	<p><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p> <p><input type="checkbox"/>한일비즈니스상담회(3F) <input type="checkbox"/>기술지도상담회(37F) <input type="checkbox"/>한일협력세미나(2F)</p>

〈참고 2〉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

(개회사)

□ (韓)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임을 언급
-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
-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
- 양국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
- 경제·인재·문화교류의 내실화·확대를 강조

(축사)

□ (韓)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
-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제시
 - *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
 - * 아·태 지역 경제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

□ (日)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한국 세 번째 근무
- 기시다 총리-문재인 대통령 전화통화, 외교당국 원활한 소통 위해 노력
- 양국 공동 대응과제 많이 있으며, 지방창생, 저출산·고령화 급선무, 기후변동, COP26 개최
- 한일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효과 감축 목표 달성 노력
-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위한 전력 수요 필요
- 지역 안전, 한미일 협조 필요
-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 완화, 격리기간 단축, 쉽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대면 교류 기대

□ (韓)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내년 상반기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발효도 예상되고 있어,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 기후 위기, 미중 대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양국 경제인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기조연설)

□ (韓)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주) 대표이사 회장

○ 현실 인식

- 코로나 팬데믹과 양극화 심화, 사회문제(고령화, 저출산, 고용률, 자살률, 디지털 경쟁력) 심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유동성 활용

○ 경제계의 역할

- 개별기업의 이윤추구 및 개별 기업간의 협력에서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 사례(일자리 문제)

○ 제언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언(경제계 협력→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

□ (日)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

- 일한경제협회/재단이 50년 이상에 걸쳐 실시해온 한일교류활동에 대해 1987년 협회 가입 이래 매년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 2004년부터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চে어맨을 맡아 온 경험을 토대로 발표

- 한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5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화 지속을 평가, 이 회의를 보다 의미 있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논의해 온 내용을 '액션,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액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강조

- 2004년에 제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2019년까지 총 26회, 2300명 교류), 2007년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OB/OG 단체를 만들어 「한일학생미래회의」 교류 활동 지속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양국 중견중소기업 산업기술력 향상, 재한일본기업 CSR 활동 사업(인턴 실습 프로그램), 아소시멘트의 한국청년인재 채용사례, 한일 경제연계 제3국 시찰 미션(한일 공동 프로젝트 110건 이상, 총사업비 27조엔) 등)

- 한일 자매도시 제휴 건수는 165건. **큐슈·한국경제교류회의 / 호쿠리쿠·한국경제교류회의와 좋은 연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깊고 지속 가능한 한일 지역 간 교류를 지속**

- 경제발전의 중요성, 지구환경유지에 대한 협력체제 등이 중요한 때에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가 공유하는 과제를 우리 현역 경제인이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가기를 기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

하고, 토론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양국의 경제·인재·문화교류의 한 부분을 큰 일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함

(전체회의)

□ (韓) 이동근(李東根) 삼정KPMG 파트너(상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 코로나가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급속한 변화, 미래의 불확실성), 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기능/산업의 비대면화, 온라인 역할 강화, 디지털 워크 부상, 스마트 팩토리 확산, 디지털 직원 확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IT인프라 업무구조 재설계),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경영진 주도 톱다운 디지털 혁신, 소비자 변화 포착 대응, 플랫폼 기반 고객경험 차별화, 디지털 기업문화)
-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적합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진 주도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확보 및 디지털 기업문화 정착
- 디지털 시대의 한일 기업간 협력 방안 제언
 - 한일 회원사 성공사례를 온라인 설명회, 세미나 형태로 기업 간 상호 교류 증진 제언
 - * 한일 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사례, 한일 소비자 행동 패턴 변화, 한일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 한일 성공적 디지털 기업문화 구축 사례

□ (韓) 권낙현(權洛顯)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대외협력센터장,

현대자동차R&D품질강화추진위원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 글로벌 환경문제(대기오염, 지구 온난화, 에너지), 주요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전망('50년 약 12조 달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고성능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계획(43조원)등 소개
- 글로벌 수소협력 네트워크 강화(신기술, 부품, 소재, 장비, 인프라기술 협력/ 수소 수입국과 수출국 간 협력 체계 구축/ 수소시장 확대를 통한 민간 수소산업 성장)
- 한일 수소 산업 분야 협력의 장점
 - △글로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과 일본은 민간 산업 협력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높음 △양국은 수소분야 기술 수준이 높아 기술 협력 시너지 클 것으로 예상 → Win-Win 전략 마련이 선행 △ 양국은 에너지 수입 구조 유사, 국제 수소 유통 시나리오 및 국제표준 등 공동 개발 용이

□ (日)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상황 ~현장보고~」

- 서울재팬클럽(SJC) 개요(한국사회·국민교류, 일본인학교 운영),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진출기업수, 투자실적), 주한일본기업의 문제점(SJC 회원수 감소, JETRO조사로 본 일본 기업 현황, 한일 문제), 요망사항 등을 발표
- '21년 회원수 : 351사(법인), 1,297명(개인), 기업현장 인재육성('15~'21 인턴실습 : 155사,

263명 실습), 한국진출 기업(SJC 351사, 산업부 통계 2,749사), 대한투자(467억달러, 15.7%)

○ 주한일본기업의 문제점

- ('20년 JETRO조사) 문제점 TOP3 ① 임금상승 ② 시장 부진 ③ 수주량 감소

한국은 :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

①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이익을 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성공적인 나라

② 단,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감소

③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장래의 사업 확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

④ 1년 전 조사로, 코로나에 의한 마이너스 영향 있음? 그러나 다른 나라·지역과 비교한 상대적인 입지는 변함이 없음

⑤ 큰 원인은 임금 상승.

- JETRO 일본계 기업조사~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 유무

* 제조업의 35%, 비제조업의 68%가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회답

* 불매 운동은 없어지지 않았고, 한일 문제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또다시 재연될 우려

○ 요망사항 : 양국 관계 개선 및 정상화

- 정치와 경제는 연결

- 양국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를 리스펙트

- 사실과 계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

- 상대방의 의견·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평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기를 기대

□ (日)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외국어대학(神田外語大学) 학장
「청년들이 열어나가는 미래」

○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1980~2020년)' : 한국 전체 26.7%, 18~29세 54.5%

- 각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혹은 '어느 쪽인가 하면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

○ 한국어 능력시험 수험자 수(출처 : 한국교육재단)

- '97년 1,529명→ '21년 40,957명

○ 한국으로의 일본인 유학생 수(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

- '10년 3,153명→ '19년 7,235명

○ 향후 과제

- 한국어를 배운 학생의 취업 기회 창출, 한자 문화권의 재검토

○ 한국으로부터 배울점

- 일본인은 한국에서 투쟁심을 배워야 한다

중국 '속지 마라' 한국 '지면 안돼' 일본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 외교, 비즈니스 협상, 경쟁

- 젊은이들은 단기간이라도 한국유학을

<참고 3>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주요 대표단 명단

<서울 회의장>

(구분별, 성명 가나다 순)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團 長	金 KIM	鈞 Yoon	(株)三養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顧問 (基調演說)	崔 CHEY	泰 Tae 源 Won	SK Group 會長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副團長	尹 YOON	鍾 Jong 圭 Kyoo	KB Financial Group Inc.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李 RHEE	仁 In 用 Yong	三星電子(株)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李 LEE	輝 Howard	世亞製鋼(株)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張 JANG	東 Dong 鉉 Hyun	SK(株) 代表理事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徐 SEO	錫 Seok 崇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賓 (來賓祝辭)	呂 YEO	翰 Han 九 Koo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
來賓	柳 YU	明 Myung 桓 Hwan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前 外交通商部 長官
來賓	權 KWON	泰 Tae 信 Shin	全國經濟人聯合會 副會長
特別參加 (座 長)	廉 YEOM	載 Jae 鎬 Ho	高麗大學校 名譽教授 (第19代 高麗大學校 總長) SK(株) 理事會議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李 LEE	東 Tong 根 Keun	SamJong KPMG 常務
特別參加 (主題發表)	權 KWON	洛 Nak 顯 Hyun	H2KOREA對外協力CENTER CENTER長
團 員	朴 PARK	南 Nam 淑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景 Gyung 載 Jae	(株)三進LND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相 Sang 俊 Joon	FINE INC. 代表理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洙 Soo 喆 Chul	(株)GH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泳 Young 官 Kwan	Toray尖端素材(株) 代表理事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도쿄 회의장> 來賓 (來賓祝辭)	姜 KANG	昌 Chang 一 Il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참고 4〉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주요대표단 명단

〈東京会場〉

(敬称略・順不同)

団 長	佐々木 幹 夫 SASAKI MIKIO	(一社)日韓經濟協會 會長
副 団 長 基調講演	麻 生 泰 ASO YUTAKA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麻生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岡 素 之 OKA MOTOYU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住友商事(株) 特別顧問
副 団 長	古 賀 信 行 KOGA NOBUYU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特別顧問
副 団 長	井 水 治 博 IMIZU HARUHIRO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株)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池 田 正 己 IKEDA MASAK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取締役會長
副 団 長	小 路 明 善 KOJI AKIYOSHI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株) 取締役會長兼取締役會議長
副 団 長	村 山 良 MURAYAMA RYO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東レ(株) 顧問
副 団 長	岩 田 圭 一 IWATA KEIICHI	(一社)日韓經濟協會 諮問委員会副會長 住友化学(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村 上 晃 彦 MURAKAMI NOBUHIKO	(一社)日韓經濟協會 諮問委員会副會長 トヨタ自動車(株) 東アジア・オセアニア・中東本部 本部長
特別参加 発表者	宮 内 孝 久 MIYAUCHI TAKAHISA	神田外語大学 学長

〈ソウル会場〉

(敬称略・順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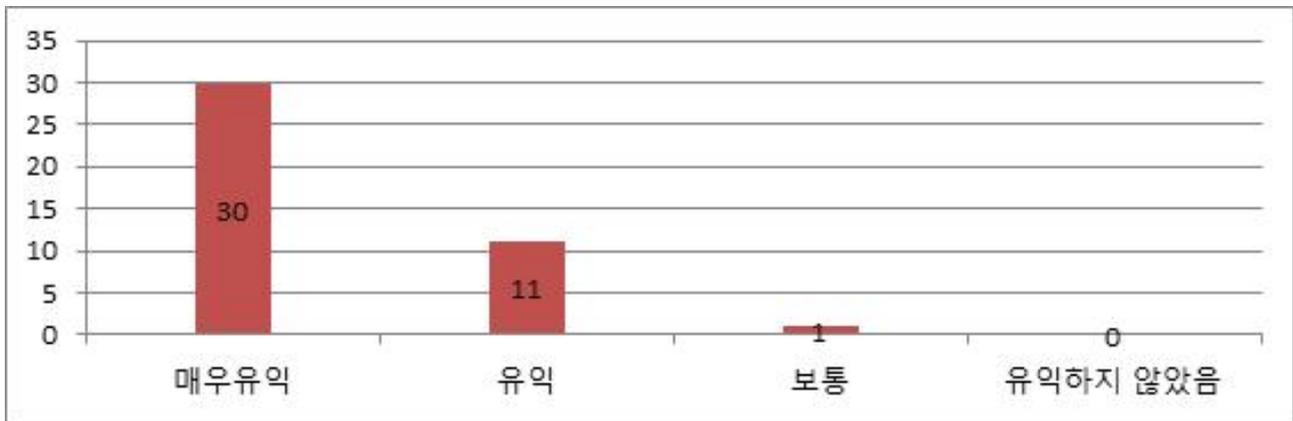
来 賓	相 星 孝 一 ATROSHI KOICH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特命全權大使
-----	---------------------------	--------------------

첨부 2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11월 2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조사
3. 조사대상 : 서울 회의장 참가자 (한일 양측 기업인 등 98명)
4. 응답자수 : 42명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한일기업인간의 협력 분위기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한일경제인의 살아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모든 면에서 잘 파악할 수 있었다.
- 침체와 후퇴의 한일 관계가 코로나 이후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일 협력과 최태원 회장의 깊이 있는 기초연설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음.
- 향후,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한일경제인회의가 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번도 중단된 적 없이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상호 관심 사항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주제와 논의가 모두 시의적절하였으며(2), 미래 산업의 수소에 대해서

정보는 물론 새로운 한일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서 동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한다.
-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과 향후 방향성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지속적인 한일 협력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하며,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 양국 경제인들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미래 창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한일간의 교류가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으며, 특히 최태원 회장의 기조 강연 내용이 좋았다.
- 발표자 4분의 발표 내용이 모두 매우 흥미있었다.
- 다양한 의견, 생각을 알수 있었으며, 매년 1회 이러한 회의를 개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한일산업기술페어2021에 맞게 산업기술의 기본인 원자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 평가의견

- 한분 한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간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인들의 이러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양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의 교류를 확장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양국을 순조롭게 잘 연결하면서 진행된 회의였다. 양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

- 어려운 시기에 개최된 만큼 더 의미 있고,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 회의 직전까지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회의였다.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의 기술협력증진을 기대한다.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으로 발전적인 결과를 차후 회의에서 성과보고가 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 전반적으로 회의는 좋았으나, 한일 간 경제 이슈 문제점과 대응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 대면보다도 훨씬 대면 같이 상호 고민한 내용을 압축해서 서로의 생각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였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일 양국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대면 회의를 준비하는 주최측에 감사를 드린다. (2)
- 한일협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도 필요하다.
- 일본측은 시대에 맞지 않는 주제인 듯하다. (과거와 같은 테마가 반복)
- 한일협력으로 원자재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한일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경제인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를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인들의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경직된 한일관계 회복이 절실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과 일본은 친구, 서로 도와야 모두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내년에는 꼭 대면 회의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 제언, 건의

- 한일 취업 박람회 활성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모색해 주기바란다.
-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자료를 칼라로 인쇄 제작해 주기바란다.
- 한국과 일본의 상호 경제적 산업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비대면 그리고 곧 있게 될 대면의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및 역사적인 문제로 경제보복 등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다가온 with Corona시대에 상호간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고,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추진 되었으면 한다.

- 조속히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 양국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북방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으로서 비즈니스가 개시되고 우호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하고,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 없이 양국 간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오랜 기간 협력해 오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한일 양국 기업은 향후 더욱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
- 거대한 중국 생산 중심의 경제 방향을 맞서서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첨단과학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중심에 맞설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은 동반성장형 긍정경쟁이 가능하다. 한일간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경제 문제는 순수한 민간베이스로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양국의 정부와 언론 등이 이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OVID-19 팬데믹 이후 양국에서 기존보다 더욱 활발한 (대면)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생들(초/중/대)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제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Business 목적의 교류회가 많았으면 한다.
- 제52회 회의에서 주제 발표되었던 한일 간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경제계 중심의 완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포트폴리오 수립과 실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한일경제인의 모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제, 경영, 무역, 수출입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분업 관계부터, 기술협력, 직접투자 등 상호 양국의 협력을 통한 조인트벤처 확대 등의 단계를 거쳐, 미래 자원개발, 전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 분야의 제 3국 공동진출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경제협력모델에 대한 논의를 심층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첨부 3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언론기사 모음

(별첨)